



삿포로 오도리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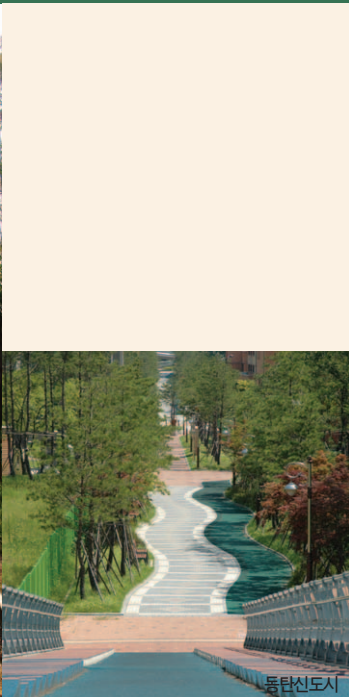
로사리움 공원

# Landscape Review

조경정보 vol.10



광주 푸른길



동탄신도시



울산 테화강



양주자이실개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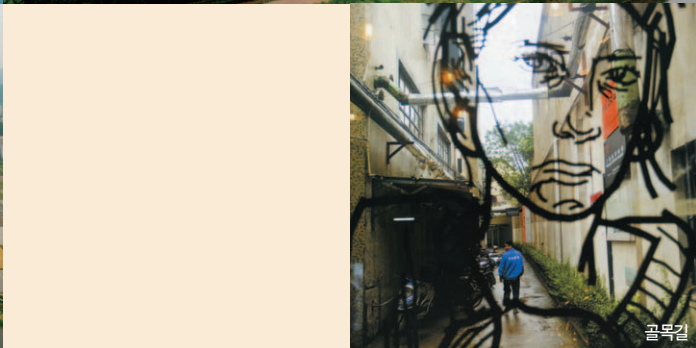
순천만



골목길



헤이그



여의도 한강공원

## Contents

- I 도시조경기본계획: 그린 인프라와 네트워크 구축
- 02 도시조경기본계획: 그린 인프라 구축계획
- 06 도시조경기본계획: 그린 인프라 네트워크 계획
- II 광장
- 08 아파트와 광장
- 10 동시대 광장의 역할과 기대
- 11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 도시조경기본계획 : 그린인프라 구축계획

조 세 환 Cho, Se Hwan ·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도시설계조경학과 교수, (사)한국조경학회 회장

## 도시조경기본계획 수립: 선택을 넘어 필수로

우리나라에는 현재 도시조경기본계획이라는 법정계획은 아직은 없다. 아니, 비법정계획으로도 도시조경기본계획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계획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21세기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대두와 함께 종합적 조경기본계획 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유사 법정계획으로 국제법상의 도시계획의 부문계획으로서의 공원녹지계획, 도시공원법상의 공원·녹지기본계획, 건축법상의 대지안의 조경, 경관법상의 경관기본계획과 특정지구계획, 환경보전법상의 생태경관지구의 지정, 공공디자인에서 말하는 가로 등 공공디자인, 산림자원육성과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도시숲, 가로수 관리 등이 있다.

사실, 조경(Landscape Architecture)의 태동과 동시대까지의 발전이라는 시대적,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은 비록 법제상으로는 다른 이름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만, 기실 전통적으로 도시조경기본계획을 구성하는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다른 법령 하에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도시라는 시스템과 함께 작동되도록 통합적으로 계획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다. 다분히 필연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다. 뿐만이 아니다. 여기에 더하여 오늘날과 같은 녹색성장의 시대에 새롭게 출현하고 있거나 체계적으로 구축되어야 할 도시그린 인프라에 대해 종합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법적, 비법적 체계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21세기 녹색주도의 도시재생의 시대에 선진적 국토 및 도시창조에 난맥상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환경개선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제, 도시조경기본계획은 지자체의 역량에 따라 좌우되는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도시의 경쟁력과 시민의 복지적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요소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이 추구해야 할 지향점

조경은 사회의 발전과 함께 그 내용을 달리하며 진화해 왔다. 그 진화를 유도하는 근저에는 그 사회, 그 시대를 압축하여 설명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이 있다. 조경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현들은 최초엔 도시근로자에게 휴양과 휴식, 전원적 풍경이 필요하다는 것, 도시를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것, 도시민에게 운동공간이 필요하다는 것, 민감한 자연을 생태적으로 보전하는 것, 교외지역을 생태적으로 계획하는 것, 공원을 통해 도시재생을 기하는 것 등은 조경이 수용하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21세기 지식정보산업사회에서 도시조경기본계획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맞이하고 있다. 녹색성장이라는 화두는 이산화탄소 배출문제, 도시열섬현상, 지구

온난화 문제, 생물종다양성 감소 문제 등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새로운 도시적, 국가적, 지구적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응이 경제적 성장의 또 다른 한축을 형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러한 녹색성장에서 우리 조경분야는 국토 및 도시에 자연의 힘이 생태적으로 작동하고 예술과 융합되는 그린 인프라 구축을 통해 자연재해(홍수 등) 예방, 에너지 순화, 이산화탄소 저감,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증진 등 환경적 문제의 해결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제고, 커뮤니티 형성 등 복지와 형평성 증진을 통한 사회적 재생과 함께 자연을 주제로 다양한 문화를 창출하고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도시의 가치와 브랜드 증진을 통해 도시경제 및 문화를 재생시키는 것이 주된 지향점이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의 방향과 과제

도시조경기본계획은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의 구축과 디자인에 관한 종합적 계획이 그 주된 내용이 된다. 그린과 인프라는 그린과 인프라의 융합 개념으로 도시, 교량, 도로, 항만, 공장, 주거단지, 군부대, 폐철도 등 산업화사회의 인프라를 자연이 작동하는 생태적 질서로 융합하여 도시의 새로운 경제생산과 공공의 사회, 문화, 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적극적 생산의 기반시설로 보는 개념이다.

도시조경기본계획이 형식과 내용 양면에서 수립되고 작동하려면 산업화시대의 도시 인프라를 그린 인프라로 구축하고 전환하는 계획, 구축된 그린 인프라를 공원과 녹지, 경관 등 법정계획의 틀 속에서 각각 종 파편화된 그린 인프라와 연결하고 네트워크 시키는 계획, 나아가 도시에 작동하는 자연의 힘(태양, 바람, 지형, 수문, 식생, 동물, 토양) 속에서 도시가 그린 인프라를 핵심으로 하나의 커뮤니티로 통합되는 고차원적 계획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의 도시조경은 이러한 체계적 계획을 담을 수 있는 법제가 정비되어 있지 않고, 또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는 그린 인프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조경기본법과 같은 제도적 틀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이들을 실천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조경기본계획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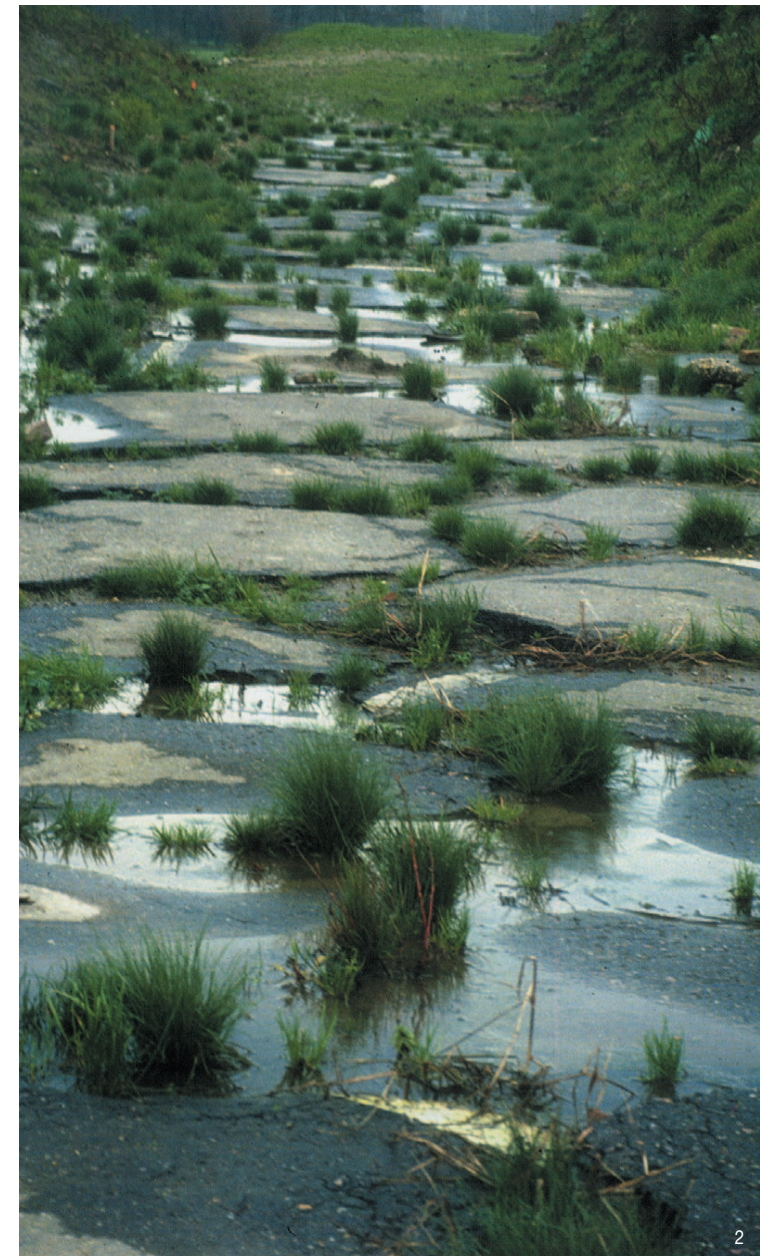
###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 구축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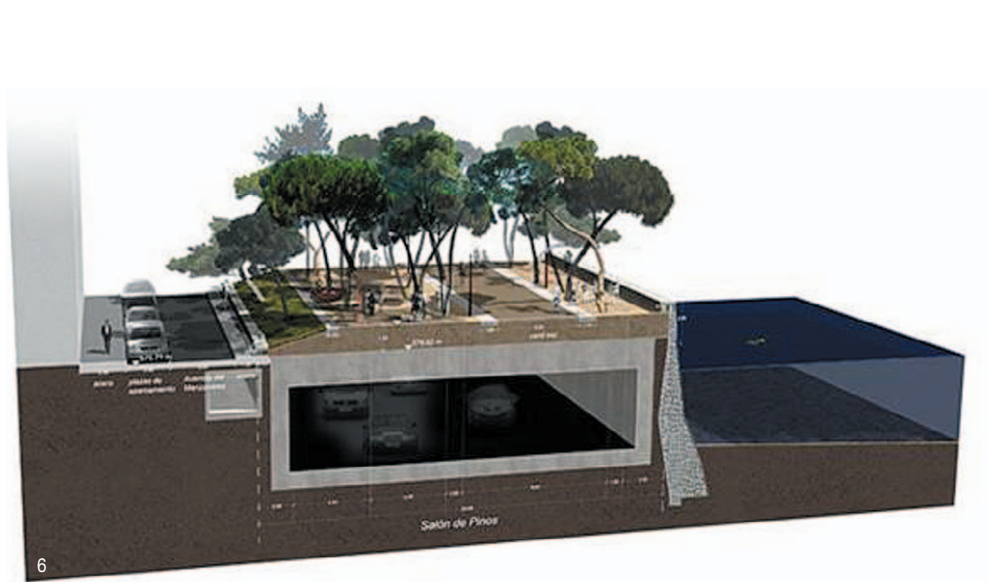
#### 공원·녹지의 리모델링화

기존의 법정계획 요소로 분류된 모든 공원·녹지가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도시지역에서 자연공원과 개발제한구역의 제외한 공원녹지율이 5% 미만의 낮은 비율을 보이고있어 공원·녹지 자체만으론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기존의 공원·녹지는 대부분 심미적, 이용성 중심으로 조성되어 있어, 도시에 자연생태와 문화가 작동되는 새로운 개념의 공원·녹지로 리모델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림 1).

#### 도시 미사용 공지의 그린 인프라화

도시공간에 나타나는 각종 미사용 비건폐 공간과 자투리땅은 그린 인프라로 조성하고 작동하여야 한다. 기존의 미사용 부지, 자투리땅에 대한 인식은 버려진 땅, 쓸모없는 땅으로 인식되고 유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땅은 탄소 흡수, 우수의 수순환체계, 지하수로의 유입, 작은 생물들의 서식지 등의 명백한 용도의 그린 인프라로 계획되고 디자인 될 수 있는 요소이다(그림 2).





**이전적지, 훼손지 등의 그린 인프라화**

폐공장이나 공장부지, 매립장과 같은 훼손지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자연 상태로 버려진 공간이 다른 용도지역에 비해 특별히 많은 지역이다. 이러한 공간을 자연성이 회복되도록 하는 것은 도시의 생태적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중요한 그린 인프라가 될 수 있다. 또한 도시공간에서 나타나는 각종의 이전적지는 특히, 도시의 중심 그린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 중심의 용도로 계획되고 디자인해야 한다(그림 3).

**도로·철도부지 등의 기반시설의 그린 인프라화**

도시의 IC 등 기반시설 부지, 폐기된 고가도로 상부, 고가도로 하부부지 등은 도시의 그린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부지이다. IC는 버려진 공간이 아니라 위치에 따라 주민들에게 거점 공원으로 재생 될 수 있거나, 거점녹지 또는 소생물서식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하이라인과 같이 도시의 폐기된 고가도로나 폐철도 부지는 도시의 새로운 그린 인프라로 도시에 자연과 문화를 제공하는 장소가 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도시공간에서 고가도로의 하부공간을 콘크리트화 하는 것 대신에 자연토양에 의한 우수의

지하유입, 생물서식 등의 용도공간으로 재활용하는 계획은 도시 그린 인프라 구축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그림 4).

**도시하천 및 주변 부지의 그린 인프라화**

하천 부지 주변은 도시와 하천이 만나는 중요한 문화에코톤(Cultural Ecotone) 지역이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지역은 대부분 고밀의 주거, 상업 등의 용도지역으로 건폐율이 높고 또 인공구조물 중심으로 계획되고 있어 도시와 자연을 분리하고 단절시키는 역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천의 제방, 인접하여 평행하게 달리는 도로부지 등은 고가화 또는 지하화를 통해 하천과 인접하여 중요한 그린 인프라로 작동 될 수 있다(그림 5).

**도로 지하화로 발생하는 비건폐 지상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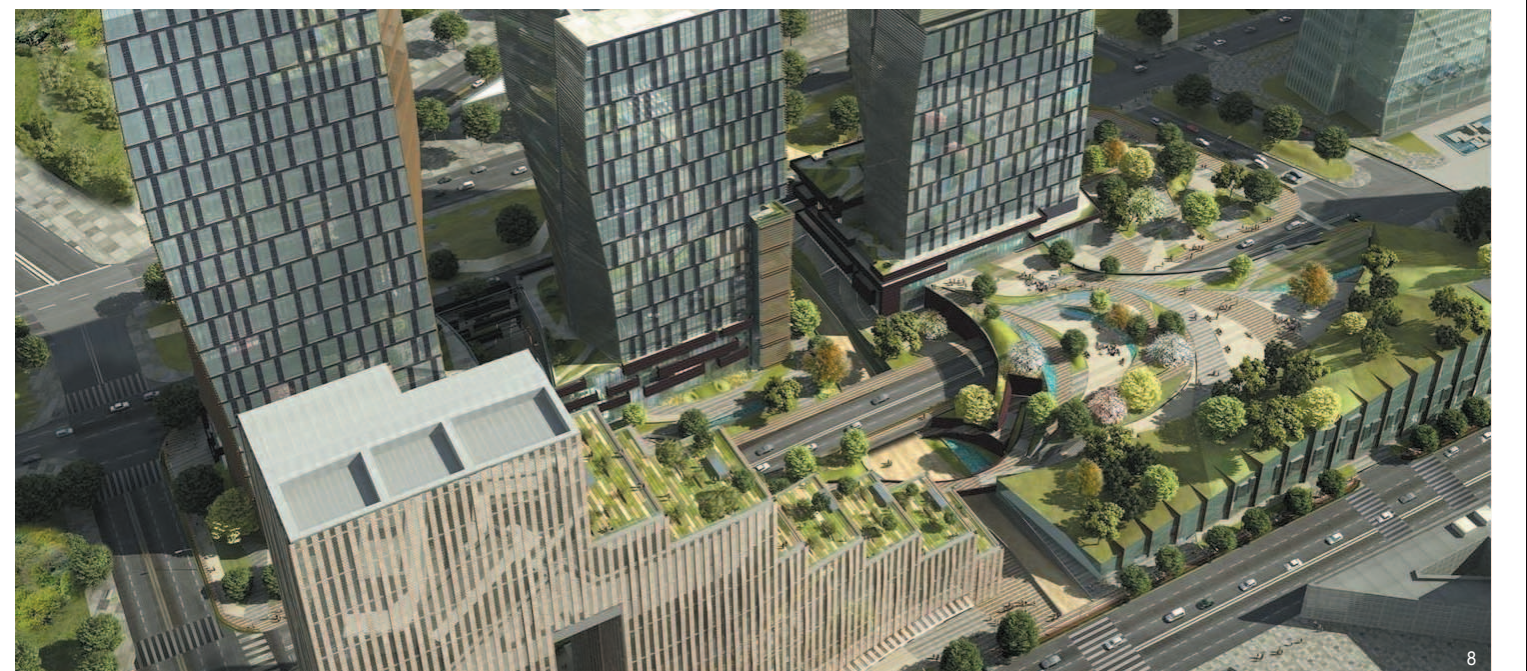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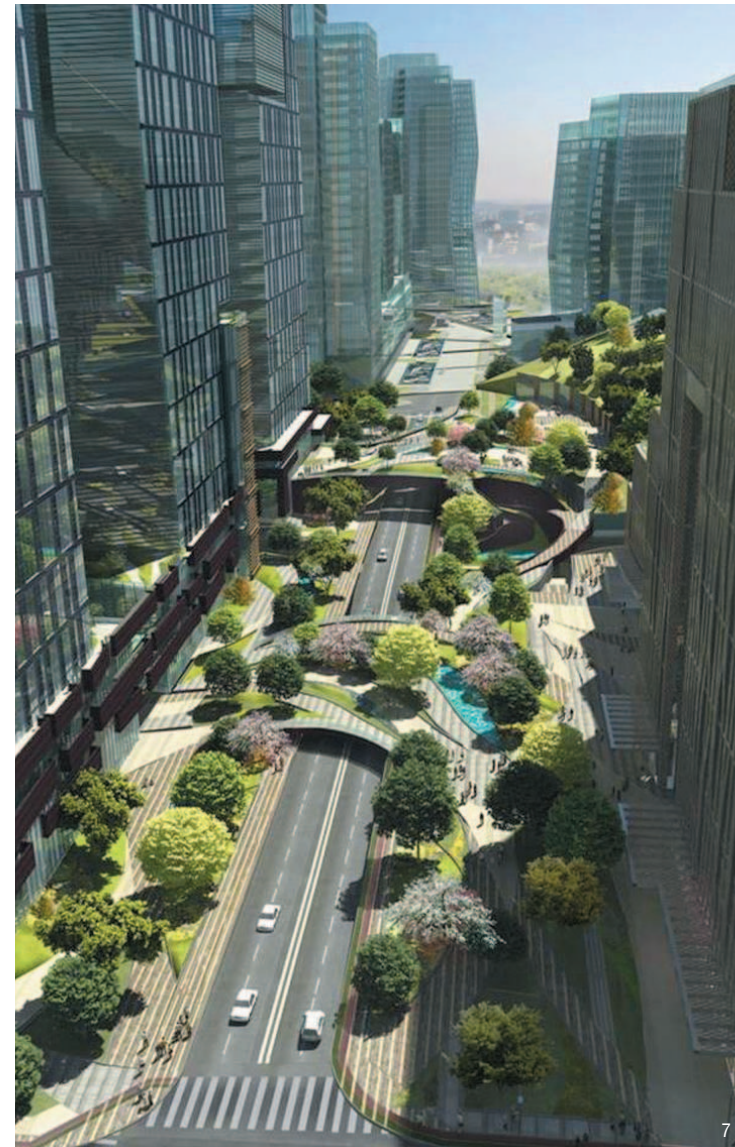
도시를 통과하는 고가도로나(예: 보스턴의 빅디 프로젝트), 하천, 해안 등 자연지역과 인접하여 시설되어 있는 도로는 지하화를 통하여 상부를 그린 인프라로 구축될 수 있다. 특히, 이렇게 구축된 그린 인프라는 도시에 녹색의 공간을 도입함으로써 자연의 시스템이 작동되도록 함은 물론이고, 문화공간화 된

으로써 주변부 토지이용의 밀도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 이른바 녹색주도의 도시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그린 인프라가 될 수 있다(그림 6).

**건축물, 고가도로 등의 입체녹화를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  
도시공간에 보행육교처럼 녹지로 조성된 육교(고가녹지)를 설치함으로써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지가가 높고 이용밀도가 조밀한 도심공간의 경우, 녹지를 설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도로공간 상부나 건축물의 상부를 고가교량으로 통과시키고 그 곳을 녹도로 조성하는 것은 도심에 그린 인프라를 구축하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런 유형의 그린 인프라가 태양광에너지와 같은 신재생에너지와 융합되어 구축된다면 관수 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효율적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그림 7).

**건축물 옥상 및 벽면녹화를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  
지표면을 콘크리트와 아스팔트 등의 인공재료로 피복된 도시공간을 전면적으로 자연의 시스템이 작동되는 그린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렇게 인공재료로 피복된 공간에는 그 공간을 점하는 건축물과 각종 구조물의 옥상부와 벽면에 녹지를 조성함으로써 그린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옥상 및 벽면부에 녹지를 조성할 경우에는 단위 구조물보다는 특정 지역 또는 지구단위로 계획을 수립하여 녹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시 말해 점적 접근보다는 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단순히 녹지의 조성이 목적이 아니라 특정 생물의 지역적 서식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그림 8).

기타, 학교공원화, 저밀 주거단지의 담장허물기 등을 통한 그린 인프라 구축이 가능하며, 도시조경기본계획은 기존의 공원·녹지계획, 경관계획, 생태경관보전 등 각종 법정계획에 나타나는 계획요소를 통합하고 연결하여 네트워크화 시키는 것을 망라하는 통합계획으로 그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chosh3@hanyang.ac.kr





# 도시조경기본계획: 그린 인프라 네트워크 계획

윤상준 Yoon, Sang-Jun (재환경조경발전재단 사무국장)

## 그린 인프라의 정의

그린 인프라스트럭처(이하 그린 인프라)는 크게 두 가지로 정의 될 수 있다. 우선 기능적인 독립체로서 도시 내와 도시 사이에 위치하는 다기능적 오픈스페이스, 수로, 가로, 산림지대, 공원, 전원지대 등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정의 될 수 있다. 다른 한 가지는 실천적 정의로서 계획의 과정 즉, 어떻게 그린 인프라가 광역의 전략적 계획과 관련되는가 하는 점이다. 그린 인프라 계획은 삶의 질 개선과 경제성장 발전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오픈스페이스 및 환경 자산의 네트워크를 보전, 개발 그리고 유지시키는 것으로 정의 된다. 이에 따라 그린 인프라 계획은 바로 우리 주변에 조성된 환경에 있어 필수적인 부분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구성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녹지의 개별적 혹은 단위적 접근으로는 구축되기 어렵다. 그린 인프라 계획은 국토환경을 위한 복합적인 인프라 계획으로서 보다 상위의 광역적 개념으로 이해하고 실행하여야한다. 그러므로 그린 인프라는 그레이 인프라 계획과 같이 국토 및 도시계획의 단계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그 본질적 중요성이 있다.

## 그린 인프라의 발단

정원도시(Garden City)를 시작으로 오픈스페이스 시스템, 그린벨트, 녹색마을, 생태 연결망, 녹지축 등 기존에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발전해 오던 개념들이 1990년대 후반 그린 인프라라는 큰 틀로서 통합·발전 되었다. 그린 인프라는 광역적 녹지 연결이라고 쉽게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지만 그

등장 배경은 전략적 계획과 실행에 있어 녹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가 아직까지 충분하지 못하다는 자각이다. 하지만 그 개념적 틀은 이미 19세기에 에베네저 하워드와 움스테드에 의해서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일찍이 움스테드는 센트럴 파크 조성이후 “일련의 고립되어 있는 공원들보다는 공원 간에 연결이 보다 완벽하고 유용하다” 했으며, 공원은 그 크기나 디자인의 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원이 아닌 여러 공원들이 연결되어 시민이 일상에서 자연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워드 또한 녹지로 둘러싸이고 정원을 가진 주택을 기본으로 넓은 오픈스페이스와 함께 녹지의 연결 기능을 담은 넓은 도로를 골자로 하는 정원도시를 제창하였다.

## 그린 인프라 계획

그린 인프라 계획은 ‘성장을 위한 동력’, ‘다기능성’, ‘질과 디자인’, ‘도시와 전원의 연결’, ‘지속가능성’ 그리고 ‘미래를 위한 투자’ 라는 원칙과 목표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그린 인프라 계획이 국립공원, 그린벨트, 지역계획과 함께 연계되어서 도시 및 농촌계획 체계 속에 포함되어 핵심적 기본계획으로 자리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그 개념 도입이 미약했던 도시 지역에서의 그린 인프라 계획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각 지역의 특성을 조사·분석하는 랜드스케이프 특성 평가(landscape character assessment)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그린 인프라 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자료를 구축하고 있다.

그린 인프라 계획의 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단계로 녹

지에 대한 현황과 정책 등에 대해 조사한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렇게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그린 인프라 구성요소의 질과 기능 등 특성분석 및 지도 제작이 이루어진다. 각 요소에 있어 잠재적 기능 또한 평가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현존하는 그린 인프라가 지역 요구에 적합한지에 대한 평가 및 조사된 자료와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그린 인프라 구성요소의 우선적 중요도와 구성요소간의 연결을 결정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선행된 단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어느 곳에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는가를 다루는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린 인프라 계획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다.

- 레크리에이션 동선, 운동시설물, 역사적 공원 그리고 전원지대를 포함하는 현존하는 자연적, 역사적 그리고 레크리에이션을 위한 자산의 보전과 강화
- 현존하는 자산에 대한 관리 개선과 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그린 인프라 구축
- 도시 내, 도시 주변부 그리고 전원지역에 자연적 그리고 인공적인 형태의 지속가능하고 안전하며 매력적인 다기능적 녹지 네트워크 구축
- 여가적 그리고 교육적 목적을 위해, 그리고 사람에게 건강한 생활방식을 고취할 수 있고 접근가능한 양질의 그린 인프라의 공급
- 지역의 중요한 그린 인프라 자산으로서의 잠재지역에 대한 질 유지 및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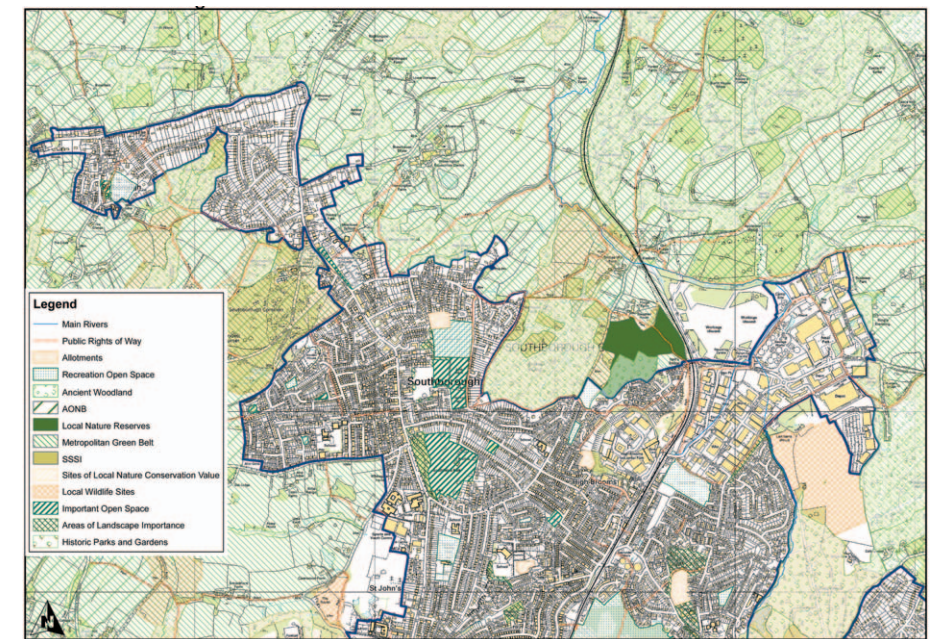
실례로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그린 인프라 계획이나 그린 인프라 구축전략 혹은 정책이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 마련되고 있다. 2012년 영국 올림픽을 기점으로 영국 런던의 관문 역할을 할 테임즈 게이트웨이(Thames Gateway) 지역 재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환경과 생태를 반영한 장소의 질 향상을 통해서, 인간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지속가능한 지역 개발을 위하여, 기존 녹지와 함께 재개발 시 새로운 녹지를 확보하여 이것들을 네트워크화 시키는 그린 인프라 계획을 구축하여 실행하고 있다.

## 그린 인프라 개념의 확대

이러한 근본적인 체계 아래에서 현재 그린 인프라 개념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녹색일자리 창출을 통한 21세기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여 더 발전된 경제와 안전한 미국을 만들겠다고 발표한 것을 기점으로 에너지, 환경, 교통, 통신 등의 분야에 광역적 인프라 개념으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들은 현재의 경제 및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21세기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방안으로 사회 각 분야에 있어 광역적 그린 인프라 구축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 그린 인프라에 대한 이해와 과제

하지만 국내에 도입된 그린 인프라 개념에는 서구사회와 많은 차이점이 존재한다. 서구 선진국에서는 녹지체계의 구축을 근간으로 하는 그린 인프라의 본질적인 개념 및 계획이 자리 잡은 상태에서 다른 분야로 그 개념의 광역적 확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그 확대된 개념이 도입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화두와 함께 기술, 에너지, 교통, 통신 등 광역적 그린 인프라 개념만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듯 국토에 대한 그린 인프라 구축의 재고가 선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광역적 그린 인프라 개념만이 도입되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위한 근간이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근본적인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국토에 대한 그린 인프라 계획이 우선적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바로 국토의 성장동력과 실천전략이 구축되는 것이며 현재 전개되고 있는 녹색성장이 각 분야에서 성취되기 위한 그 근본적 바탕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alpinet0504@hotmail.com





아파트는 아파트다. 굳이 연원을 따진다면 'apartment' 에서 온 단어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화수를 건너 곱이 되었건 탱자가 되었건 아파트는 한국화된 단어다. 그 배경에는 지칭하는 실체가 한국화되어 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아파트는 한국의 독특한 건물형식이다. 한국의 아파트 앞에 서서 서양의 'apartment' 는 이렇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무의미해졌다. 이것은 아파트가 서양의 'apartment' 와 유사성은 있으나 'apartment' 를 재는 잣대로 재단될 수는 없다는 의미다.

우리에게 광장이라고 지칭되는 도시 공간이 여기저기 조성되기 시작했다. 역전 광장과 같은 무심한 공간이 아닌 적극적인 조성대상으로서의 광장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기폭제는 서울시청 앞의 서울광장일 것이다. 처음 광장조성계획이 발표되었을 때였다. 도시에 연관이 있는 전문가들은 대개 서양의 광장, 'plaza' 를 뒤돌아보았다. 우리에게 광장문화가 없다, 내가 많이 다녀봐서 아는 유럽의 광장은 이렇더라고들 했다. 그래서 광장은 필요 없든지, 만들려면 유럽의 거기처럼 만들어야 한다고들 했다.

익숙한 아파트의 교훈은 이러하다. 한국의 광장이 유럽의 것과 유사할 수는 있으나 굳이 어디가를 형태의 원형으로 삼을 필요는 분명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것들이 모두 광장이므로 공유하는 가치는 분명 존재한다. 아파트가 'apartment' 에서 빌어오고 공유하는 가치는 '모여 쉬'이다. 광장이 'plaza' 와 공유하는 가치는 '열린 공간' 이다.

도시 안에서 시민 모두에게 열린 공간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광장이다. 그 열려있음은 헌법에 규정된 바,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원칙이 구현되는 공간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 공간이 물리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는 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서울광장조성에서 공모전 당선작이 폐기되고 잔디광장으로 바뀌었을 때 많은 이들의 질문은 또한 외국의 모습에 근거를 둔 것이었다. 잔디를 갈아놓은 광장이 세상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한국의 광장 바닥포장 재료



가 서양의 것과 같아야 한다는 주장은 우리의 아파트가 'apartment' 와 왜 다르냐고 묻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중요한 질문은 바닥포장이 화강석이나 잔디냐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래서 그 공간은 열려있느냐는 것이었다. 서울광장의 문제는 바닥에 깔린 잔디포장 자체가 아니라 그 잔디가 광장을 닫힌 공간으로 만드는 도구였다는 점이다. 자주 밟으면 잔디가 죽는다고,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만 열어놓는다면, 혹은 특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 공간은 열려있지 않다. 그때 그 공간은 광장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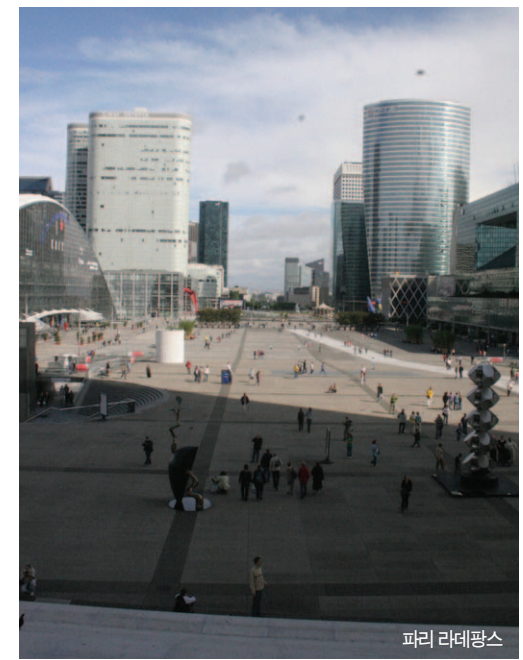
세종로를 시민들, 보행자에게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은 제대로 된 도시로 가기 위한 자연스런 요구였다. 익명의 자동차들이 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점유하고 통행공간으로만 사용하는 도시가 제대로 된 도시라고 볼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투표권을 행사하는 시대답게 세종로가 광장으로 바뀌었다.

그때 또 질문들이 쏟아졌다. 왜 광장이 도로의 한 복판에 있어야 했느냐, 여기는 왜 그들이 하나도 없느냐, 자동차가 광장으로 넘어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나 중요한 질문은 광장의 존재 이유에 관한 것이 되어야 했다. 열려있느냐.

그래서 이곳이 과연 광장이냐는 것이 바로 물어야 할 질문이었다. 광화문광장에도 꽃밭이 조성되었다. 거울에는 그 자리에 스케이트장을 개설했다. 세종로라고 하니 세종대왕 동상도 만들고 지하에 기념관도 만들었다. 광장을 만들어 역사와 전통을 존중하는 모습을 자랑하겠다고 내세웠다. 그래서 이곳을 세계에 널리 알린다고 스키점프 대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결국 뚜렷이 알린 것은, 유명해지기만 한다면, 돈만 된다면 문중 족보도 기꺼이 팔아 넘길 자세를 갖춘 이 시대의 모습이었다.

여전히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이 공간은 시민들에게 열려 있느냐. 어떤 동상을 갖다 놓든, 바닥에 어떤 포장을 하든 그 가치 판단의 근거는 이러한 디자인들이 과연 이 광장을 얼마나 더 열려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데 있다.

구체적인 질문은 이렇다. 그 광장의 꽃밭은 광장을 열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조성한 것인가. 세종대왕 동상과 그 앞의 설치물들은 광장을 더 시민들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그리하여 이 공간에서 시민들은 정치적 신념과 사회적 영향력과 신체적 장애 여부에 의한 차별을 받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을 통해 이 공간이 열려있다는 답을 얻는다면 그때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우리는 이 도시에 광장을 만들었다. hyunseo@hanyang.ac.kr





## 동시대 광장의 역할과 기대

정 옥 주 Jeong, Wook Ju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아마도 우리 국민이 가장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광장을 들라고하면 지금은 없어진 여의도광장과 서울광장이 아닐까 싶다. 거대한 아스팔트의 여의도광장은 1990년대 말 나무가 가득한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전까지 군사정권시절의 페레이드 장소로, 대통령선거의 유세장으로, 국풍81의 배경으로, 서울시민들의 자전거늘이터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서울광장은 2002년 월드컵 기간 중 서울시청 앞 교통광장이 거리운동의 메카로 부각된 것을 계기로 조성된 것으로 거리운동의 빨강과 노색의 노랑의 강렬한 이미지가 교차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를 잇는 국가적 규모의 대표공간을 구현하고자 했던 광화문광장이 등장하면서, 이제 광장은 많은 지자체들이 주목하는 공간항목이 되고 있다. 그냥 모양만 비슷하게 복제되면서 유행처럼 번지는 광장은 매우 우려되는 바이며,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서울광장, 광화문광장이 발생하면서 벌어지고 있는 광장에 대한 다양한 논쟁은 우리의 광장문화에 대한 공감된 인식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음을 방증하는 것으로, 시의적으로 우리는 동시대 우리 도시문화의 하나로서 광장의 정의, 역할과 기대를 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광장은 도시의 하늘, 도시의 입면구조, 도시의 바닥이 정의하는 빈 공간이다. 비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물리적으로 광장을 정의하는 것은 광장의 공기를 담고 있는 경계들이고, 이들-건축물, 도시구조물, 간판, 가로시설물 등은 그 도시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광장은 이러한 잠재력이 있는 곳에서 발현되어질 때 생명력을 가질 수 있다. 물리적으로 광장의 형태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어디에든 구현할 수 있지만, 그 빈공간이 광장으로 작동하려면 광장이 되기 위한 잠재적 조건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도시의 역사와 구조가 투영

된 도시입면으로 둘러싸인 공간이 광장성이 충분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장의 물리적 구조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도시민과 그들의 공간쓰임이다. 개념적으로 광장은 열려있고, 비어있어야 한다. 도시공간의 한 물리적 유형으로서 광장을 정의하기 위해 열려있고, 비어있어야 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프로그램이 채워질 수 있도록 설정된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광장이 단지 현행버스의 활동지이고, 빈곤층을 위한 식사제공의 아스팔트 공지로 인식이 고정되지 않았으면 한다. 광장의 쓰임은 더욱 다양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 광장의 진정한 모습은 물리적 형태에서 확장되어 광장 공간과 사람, 그리고 프로그램이 어우러질 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광장은 한 도시의 무대이다. 도시의 대표입면을 배경으로 하는 거대한 무대. 무대의 배우이자 관객은 도시민과 방문객이다.

여전히 남는 숙제는 과연 광장의 프로그램을 누가, 어떻게 기획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다. 공간 관리자와 기획자가 함께 협업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파심 때문에 보수적인 운영으로 흐르거나 도시민 대다수의 의사와 무관한 프로그램만 난무한다면 우리는 광장이라는 빈 공간의 다이내믹을 충분히 즐기지 못할 것이다. 우리의 오래전 전통인 5일장을 떠올려보자. 지금은 제한된 장소에서만 발생하거나 재현하는 것으로만 경험할 수 있지만 이 비정기적 장터는 빈 공간에 부여할 수 있는 즐거움과 교류, 다양한 활동을 포용할 수 있었다. 광장에 장터를 열자는 것은 아니다. 장터처럼 도시의 에너지가 응집될 수 있는 도시적 프로그램이 기획되어 광장에 적용된다면 동시대 우리의 광장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이다. wookju@snu.ac.kr

## ‘랜스케이프 리뷰’의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며

이 상 석 Lee, SangSuk · 편집위원장, 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이제 우리나라의 조경은 세계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1970년대부터 조경이 국내에 대학과 산업으로 도입된 이래 꾸준히 비약적으로 성장해오고 있다. 1973년 대학에 조경학과가 개설된 이래 현재, 전국의 43개 전문대학, 대학교, 대학원에서 매년 2천여명의 조경가가 배출되고 있으며, 산업에서도 국가기술자격의 직부분야 및 종목에서도 국토개발분야의 조경 및 환경분야의 자연환경관리는 조경분야의 주된 종목으로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5만여명이 넘는 산업인력을 배출하고 있다. 또한 조경분야 산업활동을 보면 2010년 9월 현재 조경시공업체는 조경공사업체 1,428개, 조경식재공사업체 3,491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체 2,181개로 전체 7,100여개에 달하고 있으며, 조경기술용역체로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2009년 기준으로 648개 업체가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조경기술사사무소와 수출산업으로 부각되는 조경시설물생산업 등을 포함한다면 그 수는 매우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이러한 조경산업의 발전은 통계청 자료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2009년 총공사액 자료에 따르면 조경건설업이 전년대비 30.8% 증가해 건설업 중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성장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로 인식되고 있다. 아름답고 친환경적 국토를 만들기 위한 사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미래 유망산업으로서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조경분야를 둘러싼 환경이 늘 긍정적이지는 않다. 요즘 조경의 영역을 두고 「건축기본법」에서는 공원과 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도시림과 가로수를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 분야에서도 조경분야에 대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 이러한 움직임은 조경의 영역에 갈등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진화의 방향에 서지 못하면 도태되는 다윈의 ‘적자(適者)생존’ 가설은 자연의 섭리이고 이것이 현대에서는 사람과 사회의 선택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다. 전문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시대를 따라 잡지 못하거나 미래 비전을 갖지 못하는 학문과 산업은 도태되는 것이 세상이다. ‘조경은 ~이다’라는 원론적 정의를 붙들고 있기에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스스로 창조적 변화를 꾀하고 적응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학문과 산업으로서 조경의 역할에 대한 기대와 조경의 영역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여 공공성을 갖는 조경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아름답고 친환경적인 국토 건설에 기여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미래비전을 조경정보지 ‘Landscape Review’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였다. 준비위원 및 편집위원의 헌신



적 노력에 힘입어 2008년 6월 1일자로 ‘조경이 만드는 강·하천·위터프론트’를 주제로 하는 창간호가 발행되었고, 금번 제10호가 발간되기에 이르렀다. 주제와 편집내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이 있었지만 조경의 영역과 시의성을 고려하여 녹색성장과 기후변화, 도시재생, 공공디자인, 가로, 경관, 꽃과 정원, 공원녹지기본계획, 도시대표 공원, 도시조경기본계획, 광장 등을 주제로 다루었다. 이제 첫 걸음을 내딛은 ‘Landscape Review’는 조경의 현재를 진단하고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중요한 매체로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와 사회를 위해 조경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조경의 미래를 논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조경과 관련분야의 최신 지식과 정보가 있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적지만 깊이 있는 정보가 소통되는 장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조경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열정과 패기로 가득 찬 젊고 유연한 조경이 가능하며, 조경의 미래는 전도양양한 청년처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Landscape Review’가 만들어지기까지 발간을 지원하신 조세환 학회장님과 봉사과 회생을 아끼지 않은 편집위원 및 편집간사, 고견을 주었던 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조경문화 및 정보를 외국으로까지 전달할 수 있기를 바란다. sanglee@uos.ac.kr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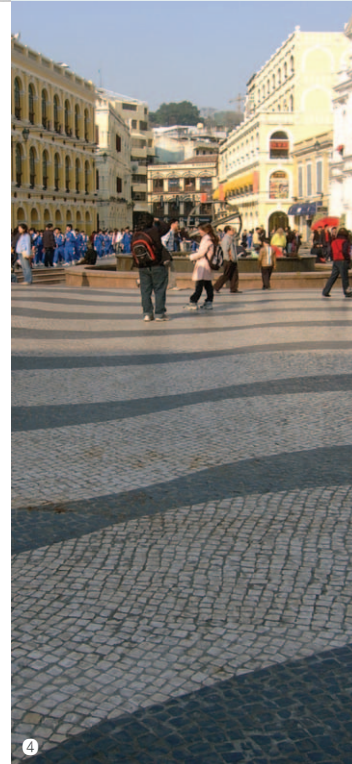


3



- 1 Residenz Plaza, Salzburg, Austria
- 2 Vazlav Plaza, Praha, Czech Republic
- 3 Hallstatt Plaza, Salzkammergut, Austria
- 4 Macau, China
- 5 Rynek Glowny Plaza, Krakow, Po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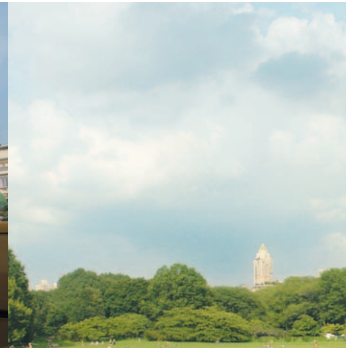
- 6 Yokohama, Japan
- 7 Rotterdam, Netherlands
- 8 Central Park, New York, USA
- 9 Time Square, New York, USA
- 10 Seoul Plaza, Seoul, Korea



4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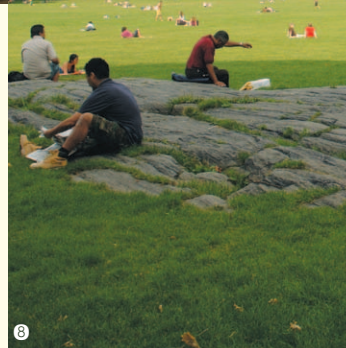
8



6



7



9



10



(주) CA조경기술사사무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2가 333-140  
 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 2차 308호  
 Tel. 02-543-4454 Fax. 02-2117-0448  
 E-mail. CA03@chol.com  
 Homepage. www.cadesign.co.kr



(사)한국조경학회 발간 정보지

발행인 | 조세환      편집위원 | 정옥주  
 편집위원장 | 이상석      강호철 권진욱 박문호 이형숙 조동범 주신하  
 간사 | 유은자 임해숙 백정희      김도경 김태경 이유희 조경진 진양진 최신현  
 발행일 2010년 12월 15일 | 발행처 (사)한국조경학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35-4 과학기술회관 신관 1007호  
 TEL \_ (02)565-2055 | FAX \_ (02)565-2056 | e-mail\_kila96@chol.com